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뿜어 버려라.

제언: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역사의 원형을 찾아(III)

올바른 역사관의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역사를 밝힐 수 있다

동양적 역사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천손민족론의 바탕 아래 역사의 기원을 유신론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인간 자신이 왜 하나님의 자손이며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논하는 역사가나 종교인이 없기에 역사는쟁이나 종교의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반면에 서양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유신론적 성경이나 동양철학에 의문을 품고 반발하여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유물사관에 기초한 진화론이라는 동물론적 인류사 꾸미기에 광분하여 그들의 역사관이 진화론 역사관이라고 하며 세계역사학의 연구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신적인 존재를 빼버리고, 물질적인 반쪽 존재로 보면서 동물적인 역사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그들이 철학하게 믿었던 성경의 창조 역사관이나 기독교 차원의 미신론적 내세신앙관으로는 인생의 문제나 우주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만큼 역사 기록이 오래된 책은 없다

그러나 사실 인류 역사를 기록한 종교 경전이나 역사를 막론하고 구약성경 역사보다 사실적이고 오랜 역사 기록은 찾아보기 드물다. 물론 구약성경의 역사가 약 3500여 년 전 모세가 노아 홍수 이후 구전되어 내려온 이스라엘 민족사를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뿌리역사와 참 하나님의 종교가 있고 인류 역사의 변성과 흐름이 있기에 종교와 역사의 뿌리가 하나 속에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 기록 이후 예수가 창시한 기독교 신약의 역사가 쓰여지기까지 약 1500여 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신약에서 예수의 탄생과정부터 성인이 되어 나타나 활동하는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역사 연대기로 본다면 성경의 실제 기록의 역사는 동양의 어떤 역사, 종교서적보다 1000년~1500여 년 이상 앞서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이자 경전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고조선 이상의 역사 기록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삼국유사나 한단고기, 단군세기,



구약성경과 손성태 교수의 <우리민족의 대이동>을 참고하면 인류사의 기원과 인내천사상의 연원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삼삼밀기, 규원사화 등 어느 것이나 2천년이 넘는 역사 기록물이 없다. 기록한 내용으로 보아도 이미 고대 중국 역사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 고조선의 실제 역사의 우리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삼국시대 이후 후세 전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중국 한나라 이후 축소 왜곡된 역사를 참고로 하여 기록한 역사서적에는 없는 현실이다.

이에 오늘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발표되는 한단고기 역사 이야기를 보면 일부 종교 단체의 역사관과 진화론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짜 맞추기식의 역사를 논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들은 천손민족론을 논하면서 서양의 유물진화론에 바탕을 둔 진화론적 역사관과 결부시켜 오랜 역사사야 참인 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자신의 관계 정립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역사철학도 없고, 종교과학도 없는 동물론적 역사관과 미신론적 종교관이 합쳐진 과장되고 왜곡된 역사담론밖에 되지 않는 우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종교와 역사가 아니면 스스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걸려 거짓됨이 드러나게 된다.

최근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는 <우리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책에서 남북미 인디언과 멕시코 인디언들의 뿌리 역사가 한민족의 고조선 후기로부터 삼국시대 말까지 약 천 년의 역사 동안 이동해 간 우리민족 고대역사라고 주장하며, 그들 고대 언어와 기록 문자를 분

석하고, 전래 풍속과 유물 유적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파헤쳐 놓았다. 곧 콜럼부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 이후 남북미 대륙을 정복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서구 정복자들이 처음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느낀 대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쓰던 언어와 문화, 종교, 유물유적 등 생활 그대로를 지리학자 고찰과 고고학적 역사관계를 기록하였기에 사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서양의 유물론적 진화론에 입각한 세계사와 동양의 사편적 역사 종교관을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연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오늘날 미국의 일부 역사가들이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최소한 15,000여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북방 아시아계의 인류가 건너와서 살았을 것이라는 등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견강부회(牽強附會)하여 오랜 역사사야 참 역사요, 진리인 양 주장했지만, 인디언 그들이 고조선 후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불과 2000~1000년도 채 안 된 과거에 우리 한민족의 한 분파가 이동하여 간 역사라는 것이 사실로써 인정된다면 그들의 유물론적 진화역사관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역사관이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이 동북아의 한민족이 이동하여 간 무리라는 것을 밝혔듯이, 천손 단군민족의 역사관 또한 그 옛날 환인과 서자환웅이 살았던 석유환국이라는 뿌리 역사로부터 이동하여 온 민족임을 보다 더

세계사적 역사 자료와 지리적 탐구와 그들이 쓰다 남긴 언어문자와 풍속의 유래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민족사의 뿌리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손 교수의 책에서처럼 임카 마야문명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역사의 흐름은 인류 문명의 발원지로부터 해뜨는 동방으로 이동하여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힘에 있어서도 어떤 종교적 편견과 학술적 이기주의의 편파주의를 버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범 인류사적 차원에서 역사철학을 논하고, 종교과학을 밝혀야 참 진리의 역사가 되고 진정한 인류구원의 역사와 종교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인류사의 기원이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인류의 뿌리와 인내천 사상의 연원을 밝힐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참 종교요 참 역사인가?' 묻는다면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면 왜 무슨 이유로 천손민족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종교의 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참 종교요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아 이러나 하지만 서양 기독교인들이 전해준 성경 구약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5경에 천손 단군민족의 원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인류사의 기원과 변성 발전된 뿌리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손이라'는 내용과 고조선의 단군성조께서 가르친 '인내천(人乃天) 사상'에서 보듯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고 오늘의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신학적이고 과학적 측면에서 풀어주고 그 되어진 현상의 역사와 종교를 논해야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천손민족의 올바른 역사관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배출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인류 대통합과 구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보복 / 민족사 바로잡기 운동가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9)

“나라는 마귀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능구렁이 마귀인 것이다. 이런 마귀에게 넘어가는 자도 역시 같은 마귀인 것이다.

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백 번도 전을 하고, 나라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나를 짓이기고 미워하는 생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미워하는 척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잘 올라가다가도 마귀의 생각에 순간 사로잡혀서 오늘은 추우니까 쉬어야지, 오늘은 험드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싸움을 하다 말고 멈추면 여지없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마음공부

마음은 글자가 없는 책이다. 그래서 무자서(無字書)라고 한다. 글자는 없지만 마음은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만들어낸다. 유전자 1개에 적힌 정보 가 500쪽 짜리 1000권에 해당된다고 하니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 가늠 놀라울 정도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생명이 되는 피를 썩게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사람의 피를 맑히는 것이다.

사람의 창조력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냈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비의 명약 불로초를 현재도 계속 찾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마음은 반생명적인 마음과 분노 등 파괴적인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간의 평화와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신다. “매일매일 그 생각을 체크하여야 한다.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또 어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 매일 체크하면 내 속에 어떤 것이 제일 대장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대장마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

하여 죽이고 나면 두번째 대장마귀가 나오는 것이다. 두번째 마귀를 죽이고 나면 마귀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신경질이 많은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기질 등등, 자기 속에 대장마귀를 집중해서 죽이고 나면 2차 마귀, 3차 마귀, 4차, 5차 쪽 일렬로 서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계속해서 짓이기고 부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공부를 해야 성숙한 인간이 된다. 인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우주만물은 왜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등등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요즘은 각 종교에서도 마음공부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일과 삶에 지쳐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공부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잘못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마음공부는 조금 힘들 듯하다. 승리제단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마음의 정체를 완전히 정복한 극기승자라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